

새입시 제도하에서의 지방사립대학 입시방안 연구: 동의대학교를 중심으로

윤명희 · 안도희
(동의대학교)

본 연구는 새로운 입시제도하에서 지방소재 사립대학의 2002학년도 신입생 선발제도에 도입할 목적으로 과거 5년간의 전형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1995학년도부터 1999학년도까지 동의대학교에서 중요한 전형자료로 사용하였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과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신 성적과 대학의 평점평균간의 상관이 수능 성적과 평점평균간의 상관보다 일관성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998~1999학년도에 적용된 특차전형과 일반전형의 경우, 수능 성적만을 고려한 특차전형에 비해 내신성적과 수능 성적을 함께 고려한 일반전형이 대학 학업성취도를 더 효과적으로 예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학년도까지 지방 중하위권 대학에서 주된 전형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수능 성적과 내신성적만으로는 그 예언력이 약해 다양한 전형방안이 체계적으로 추가되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I. 서론

해방 이후 오늘까지 우리나라 대학 입시제도는 무려 11차례에 걸친 큰 변화와 그 이외의 세부사항에 따른 수십 차례의 작은 변화를 거듭하며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창의성을 갖춘 다양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획일화된 방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게끔 하는 새입시제도를 2002학년도부터 적용하게끔 되어 있어, 각 대학마다 새로운 신입생 선발제도를 통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야 하는 당면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새입시제도는 현 정부에서 한국교육의 문제를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사람됨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획일화된 교육에서 자율화·다양화·특성화된 교육으로, 공급자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중

심의 교육으로, 학교내에 국한된 교육에서 사회 전반에 확산된 교육으로, 학벌중시의 교육에서 능력중시의 교육으로, 그리고 양의 교육에서 질의 교육으로 각각 전환”(고형일 외, 1998; 5)하는 것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며, 그중 새로운 대학 신입생 선발제도는 한국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입장에서선 새입시 제도하에서 대학자체의 전형안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 새로운 부담으로 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소재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수도권 소재의 중상위권 대학보다 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지방의 중하위권 대학들은 서울 및 수도권의 중상위권 대학과는 달리 학생수가 감소되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입시제도의 도입이 교육적 취지의 수용보다는, 대학재정의 안정적 확보라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지방 중하위권 대학들은 우선적으로 대학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교육부로 받는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의 새입시 정책을 수행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수도권의 중상위권 대학과는 달리 대부분의 지방 대학들은 지금까지 수학능력시험과 내신 성적만을 주된 전형자료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전형자료를 다양하게 추가시킬 경우, 이들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게 대학 자체내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입시방안이 제시되면, 이것은 수험생 개인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 대학 집단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는 지방의 중하위권 대학의 경우 선발기준을 다양화하면, 학생들의 지원부담이 커져 학생들이 지역내의 경쟁관계에 있는 타대학들과 비교하여 생각보다 적게 유치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2004학년도부터 대학정원에 비해 응시 학생수가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현실에 직면하여, 더욱이 지방학생들의 수도권 진출이 심해지고 있는 현 실정에서 지방대학 나름대로의 학생유치에 대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는 “2002학년도 이후 신입생 전형방안 연구를 위한 동의대학교 대학입학 전형 연구위원회”의 조직 결성과 더불어, 대학입학전형 제도 변경에 따른 신입생전형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다. 즉 과거 실시된 전형방법(수학능력시험과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분석하여 새로운 입시제도하에서는 이들의 반영비율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 것인가?, 만약 다양한 전형자료를 도입할 경우 어떤 전형안을 추가할 것인가?, 또한 이들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등에 대한 의문점에서 시작한 것으로, 일차적으로 과거 5년간의 입시전형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새제도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5년간(1995~1999학년도)에 걸쳐 동의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입시전형자료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수능)과 고등학교 내신성적(내신)을 중심으로 연도별로 살펴보았다. 과거 5년간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입시하에서의 전형비율과 방안에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1995학년도부터 1999학년도까지 동의대학교에서 사용한 입시전형자료에서 독립변인(예언변인: 수능, 내신)과 종속변인(준거변인: 각 학기별 평점 및 전체평점의 평균) 간의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이며, 이들은 각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가?

2) 1995학년도부터 1999학년도까지 동의대학교에서 사용한 입시전형자료에서 대학 학업성적에 가장 크게 공헌한 예언변인은 무엇이며, 각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가?

3) 1998~1999학년도에 적용된 특차전형과 일반전형에 있어 어느 전형방법이 대학 학업성적을 더 효과적으로 예언하였으며, 각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가?

4) 위 1), 2), 3)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입시체제하에서 학생들의 대학 수학능력 적합성을 잘 예측해 줄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한가?

본 연구는 현재 동의대학교에서 주된 전형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고등학교 내신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학생들의 대학 수학 적합성을 얼마나 잘 예측해 주는지를 분석하고, 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전형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학교 당국에 제언하여, 지방소재 사립대학교의 우수인재 유치에 적합한 입시전형안의 개발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II. 이론적 배경

1. 대학 입학성적과 입학후 학업성취도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근본취지는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의 적합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기초한 언어, 수리탐구, 외국어 영역별 통합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사고력을 측정하는 학력고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수학 적격자의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며 학교선발에 공공성과 객관성이 높은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8).

1994년부터 대학입학 전형에 관한 대학의 자율권이 주어졌다고는 하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총점을 적용하는 대학이 전국 187개 대학 중 92개교(49%)에 달하며,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를 영역별로 반영하는 대학이 117개교(63%)에 달하는 것을 보면(민경찬, 1999), 대학입학 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고등학교 내신성적이 학생들의 대학 재학시 학업수행 성공가능성을 적절히 예측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고등학교 내

신성적 및 대학 재학시 학업성취도와 관련하여 몇몇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상호(1995)는 C 대학 1학년 학생 3,929명을 대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등학교 내신성적, 및 대학교 학업성취도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대학 재학시 학업성취도간에 의의있는 정적상관이 있으나 ($r = .04, p < .05$), 그 상관관계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교 내신성적과 대학 재학시 학업성취도간에도 의의있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26, p < .001$).

또한 대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고등학교 내신성적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고등학교 내신성적이 대학 학업성취도를 6.5% 설명하고 있으며($F=273.98, p < .001$), 고등학교 내신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은 대학 학업성취도를 7.4%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55.70, p < .001$). 이는 고등학교 내신성적에 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끼치는 영향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즉, 대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이들이 대학에서 얼마나 잘 학업을 수행해 나가느냐와는 별개의 문제이거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대학 재학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박영신(1995)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예언타당도 분석을 위해 I 대학 1학년 학생 3,786명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고등학교 내신성적, 및 이들의 대학 학업성취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대학 재학시 학업성취도와의 낮은 정적상관($r = .29$)이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내신성적과 대학 입학 이후의 학업성취도와의 상관은 $r = .40$ 으로 나타났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보다는 내신성적이 대학 재학시 학업성취도와 더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과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예언변인으로 설정하고 대학 학업성취도를 준거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과 고등학교 내신성적이 대학학업성취도를 17.9%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206.53, p < .001$), 예언변인 중 고등학교 내신성적이 대학학업성취도를 16.1% ($R^2 = .161$) 설명해 주는 것으로 ($F=727.41, p < .001$) 나타났다. 즉 고등학교 내신성적($R^2 = .161, \beta = .33$)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성적($R^2 = .018, \beta = -.05$ (언어), $.11$ (수리탐구), $.10$ (외국어)) 보다 대학학업성취도를 예언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신(1995)의 연구결과는 김상호(1995)의 연구결과에 비해 세 변인(대학수학능력시험, 고등학교 내신성적, 대학 학업성취도)간의 상관지수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차이에 대해서는 두 연구의 표집대상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초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렵다. 그러나, 김상호(1995)의 연구에서 분석한 표집대상이 대학입학시 학력면에서 보다 더 동질적인 집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표집대상의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및 고등학교 내신성적이 동질적일수록, 이들의 예언력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다. 상위수준의 학생들을 표집하거나 중하위 수준의 학생들을 표집하거나간에 대학입학성적분포 상에 나타나는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작을수록 이들 변인의 타당도를 과소추정하게 한다 (김충희, 1993).

강승호(1999)는 1995~1997년도 동안 강원대학교의 입학전형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모집 유형과 전공제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학학업 성적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여준 입시요인은 내신이었고, 그 다음이 수능성적이라고 하였다. 이들의 상관은 중위 수준보다 다소 낮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앞으로 입시 다양화시대에 대비하여 입학전형방법의 연구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서 일관성을 보이는 것은 고등학교 내신성적에 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예언타당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Hand와 Prather(1985)의 연구에서도 고등학교 내신성적에 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대학 학업성취도와 낮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Scholastic Aptitude Test (SAT) 성적과 고등학교 내신성적이 과연 대학 학업성취도를 예언해 주는지에 대해 Hand와 Prather(1985)는 31개 2년제 및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45,067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SAT의 예언타당도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대학학업 평점(GPA)과 SAT-언어영역, SAT-수리영역, 낙제한 과목을 포함한 총강좌 이수시간, 학점 D이상 취득한 총 수강강좌 이수시간 및 고등학교 평균성적간의 회귀계수는 각각 .0016, .0006, -.006, .008, .30으로 나타났다. 이는 즉,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고등학교 성적에 비해 대학 수학능력의 적합성에 대해 예언적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SAT 성적이 대학 수학능력 적합성을 제대로 예측해 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수험생들은 SAT를 잘 치르기 위해 성공적인 훈련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Wilmouth(1991)는 주장했다. 대학입학전형자료로서의 SAT성적과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에 비해 추가적으로 유용한 예언적 정보를 제시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Trusheim & Crouse, 1982). 이와 같은 현상은 다른 선행연구 (Slack & Porter, 1980) 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에 수행된 SAT의 타당도 연구에서는 이전에 비해 보다 높은 SAT성적과 GPA간의 타당도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허경철, 1991; Bridgeman, Jenkins, & Ervin, 1999). 미국 대학국이 685개 대학에서 수행한 SAT의 타당성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과, SAT성적과 대학 1학년 학생들의 대학 평점(FGPA)과의 타당도계수는 .42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내신성적과 FGPA와의 타당도계수는 .48로 나타났다 (허경철, 1991). 이러한 연구결과는 Bridgeman, Jenkins와 Ervin(1999)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는데, 23개 대학에서 표집한 대학 1학년 학생들의 대학 평점(FGPA)과 고등학교 내신성적 및 SAT I (추론능력 검사)간의 상관관계가 각각 .54, .52로 나타났다. 1980년대 초반에 나타난 연구결과에 비해, 1980년대 후반에 나타난 연구

결과에서 보다 높은 상관지수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에 대한 추론은 다음과 같다. Hand와 Prather의 연구는 회귀계수를 사용하였고, Bridgeman, Jenkins와 Ervin의 연구는 상관계수를 사용한 것이므로 직접적인 수치의 비교는 어렵지만, 두 연구에서 일관성을 보이는 것은 고등학교 내신성적이 SAT성적에 비해 대학 평점에 대한 예언력이 높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외국의 연구에서도 고등학교 내신성적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비해 대학 학업성취도를 보다 더 잘 예언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입학 전형자료로 대학입학 지원자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만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과연 이들이 대학입학 후 학업 수행을 잘 해 나아갈 지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점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2. 2002학년도 대학입학시험의 주된 내용과 특징

새 대학입학제도는 무시험전형을 전제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말하자면 학생들에게 교과성적 위주의 공부와 입시준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사고력과 적성, 인성을 키워주는 전인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고교교육이 개선되면 초·중학교 교육까지 연쇄적으로 정상화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대학교육의 질도 나아질 것이라는 논리이다. 이를 위해 새제도는 겉으로는 대학에 다양한 전형방법의 선택 등 학생선발을 위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본고사 위주의 필기시험을 금지하는 등 상당히 타율적인 성격도 갖고 있다. 새입시 제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교육부 고등교육지원국 자료, 1999a).

무시험전형의 의미는 대학에서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며, 지난 50여년간 강조되었던 시험성적의 비중이 줄어 학력과 관련된 자료뿐 아니라 학력 이외의 다양한 자료를 많이 사용하여 추천제, 특기자전형, 대학 나름의 독자적 전형형태 등이 자리잡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전형자료를 개발해 대학에 제공하고, 새입시제도에 맞춰 고교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대학은 대학의 특성과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춰 학생선발 방법을 다양하게 하되, 성적과 성적 이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생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선발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고교는 입시교육 일변도에서 탈피해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며, 학생 개인별로 개별화된 진로지도도를 강화해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02학년도부터 원점수는 제공되지 않고 표준점수만으로 성적을 표시하게 된다. 총점 위주로 석차를 매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점을 표시하지 않는 대신 5개 영역별 점수가 표시돼 대학별로 모집단위에 따른 영역별 점수 반영이 주로 이뤄지게 된다. 영역별로

점수를 9~11 단계로 표시해 대학이 표준점수와 함께 등급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학 자체 전형자료로 본고사는 금지되지만 사고력 평가를 위해 논술고사는 실시할 수 있다. 학생활동이나 특별활동, 사회활동, 동아리활동, 취업경력, 경시대회 수상경력, 효행수상경력, 특수기능 보유 자격증 등이 전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 추천서 수학적계획서, 자기소개서, 학교 특성 에세이 등도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무시험전형에 따라 면접을 강화하는 대학도 있고 간단한 면접만 하거나 아예 면접을 하지 않는 대학도 있을 수 있다.

2002학년도 새 대학입시제도는 전형일정으로 볼 때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단순해진다. 현행 조기모집과 특차모집의 용어가 사라지고 대신 그 내용이 수시모집으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수시모집은 모집기간이 지금의 9월 이후에서 연중으로 확대되고 내용상으로는 3학년 이전이나 3학년 1학기 때의 '예약입학'이나 조기모집, 또 정시모집 이후의 추가 모집까지도 포괄한다. 새 대학입시제도는 대학별로 건학이념이나 교육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학생선발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입학전형의 선발 목적과 선발 기준은 해당 대학의 교육목표와 발전방향의 연계선상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대학별 특성이나 모집단위의 성격에 맞게 학생을 선발하는 독자적 방식도 많이 도입될 것이다.

III. 연구방법

지난 5년간(1995~1999학년도)에 걸쳐 동의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입시전형자료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수능)과 고등학교 내신성적(내신)을 중심으로 연도별로 살펴보았다. 동의대학교의 지난 5년간 입학전형안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95~99학년도에 일반전형에서 내신과 수능의 비율을 50 : 50으로 하였고, 98과 99학년도의 특차전형에서 수능만을 100% 전형자료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5와 96학년도에는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방법이 동일하여 내신과 수능을 각각 200점 만점으로 하는 단일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였다. 97학년도의 A는 일반전형안, B는 내신과 논술만으로 학생을 선발한 취업자 특별전형안을 말한다. 98학년의 경우 A는 일반전형안을 말하고, B는 수능에 의해서만 학생을 선발한 특차전형안, C는 내신과 논술, 그리고 면접에 의한 취업자 특별전형안이다. 99학년의 경우 A와 B안은 98학년의 경우와 같이 일반전형과 특차전형을 말하고, C는 체육특기자전형, D는 취업자 특별전형을 나타낸다. 그리고 예체능대의 경우는 내신과 수능 뿐만 아니라 실기시험이 포함된 전형안을 사용하였다.

<표 1> 동의대학교 연도별 입학전형안

학년도	전형안	내신	수능	실기	논술	면접 및 기타	대상단과대학
95	95A	200	200	·		·	7개 단과대학
		200	200	180			예체능대
96	96A	200	200	·		·	7개 단과대학
		200	200	180		·	예체능대
97	97A	400	400	·		·	7개 단과대학
	97B	800	·	·	200	·	"
		400	400	350		·	예체능대
98	98A	400	400	·		·	7개 단과대학
	98B	·	400	·		·	"
	98C	400	·	·	200	400	"
		200	400	400		·	예체능대
99	99A	400	400	·		·	7개 단과대학
	99B	·	400	·		·	"
	99C	200	400	400		·	"
	99D	600	·	·		400	"
		200	400	400		·	예체능대

1. 연구대상 및 표집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1995~1999학년도에 동의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로서, 관련자료는 교무처 입학과의 협조하에 수집되었다. 연구대상은 각 입학연도에 따라 다양한 전형방법에 의해 입학한 학생 중 졸업생과 재학생 중에서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이 산출될 수 있는 학생들을 전부 포함시켰다. 각 연도별 입학생 중에서 군입대, 질병, 휴학, 자퇴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입학 후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학생은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표 1>의 입시전형안 중 98C, 99C, 99D안은 취업자나 특기자 특별전형안으로 이에 해당되는 학생의 수가 많지 않아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예체능계의 학생들은 다른 계열의 학생들에 비해 실기 전형요소가 대학 입학 선발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므로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95, 96학년도 입학생의 경우 99년과 2000년 2월에 이미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하였다. 졸업생의 경우 총 8학기의 대학 학업성취도 평점평균을 산출할 수 있었고, 재학생은 산출가능한 학기까지의 학점을 계산하여 평점평균을 계산하였다. 97학년도 입학생은 현재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므로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98학년도 입학생은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99학년도 입학생은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산출하였다.

<표 2>에 나타난 전체 학생수는 연도별 신입생수를 말하는 것이고, 98C, 99C, 99D 전형안과

3학기까지의 성적이 불가능한 학생을 제외한 후 본 연구에 포함시킨 사례수를 학기별로 제시하였다. 연도별 사례수를 살펴볼 때 특이한 것은 97학년생의 대상 학생수가 다른 학년도에 비해 월등히 적은 것은 97년도 하반기에 국내의 불황과 IMF 사태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군입대 등의 이유로 휴학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 연도별 신입생수 및 연구대상자수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95학년생	2,588	2,348	2,348	2,347	2,133	1,933	1,113	1,070	928
96학년생	2,873	2,506	2,506	2,506	1,571	1,356	1,222	1,169	745
97학년생	3,082	1,921	1,921	1,921	1,538	1,287	965	813	
98학년생	3,533	3,520	3,373	2,296	1,840	1,531			
99학년생	3,721	3,628	3,379	2,342					

2. 분석방법

동의대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의 최근 5년간 입학 성적(고등학교 내신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이들의 학업성취도 점수(입학 후 대학평점)간의 상관관계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요소들의 예언타당도와 연도별 경향을 SPSS/PC 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기술통계값(예:평균, 표준편차)을 제시하는 것이 관례이나, 대학의 입시자료라는 민감한 문제로 인해 평균과 표준편차는 제시하지 않았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입학성적과 학기별 및 전체 대학성적의 단순상관분석

“1995학년도에서 1999학년도에 동의대학교에서 사용한 입시전형자료에서 독립변인(수능, 내신)과 종속변인(각 학기별평점 및 전체평점의 평균) 간의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이며, 이들은 각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가?”라는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하여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상관관계를 학기별로 나누어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내신과 수능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면 95, 96, 97학년도에는 .12~.20으로 나타나지만, 98학년도와 99학년도에는 .42~.47로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 암기능력이 아닌 종합적인 이해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사교육에 의존하기보다는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상적인 고교교육을 받은 학생들이면 누구나 맞출 수 있도록 문제의 난이도를 조정하고 있으며, 내용도 교과서 중심의 내용을 확대하고 있어 내신과 수능의 상관관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신과 수능 두 예언변인 중 내신이 수능성적보다 학기별 평점뿐 아니라 전체평점에 있어 전체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95학년의 내신과 학기별 평점간의 상관을 보면 .26, .03, .01, .18, .18, .14, .18, .18인데 반해, 수능과 학기별 평점간의 상관은 .05, -.15, -.21, .06, .01, .06, .11, .11이다. 99학년의 내신과 학기별 평점의 상관계수는 .36, .33, .26인데, 수능과 학기별 평점은 .21, .20, .18이다. 이는 내신이 수능보다 대학 입학후 학업성취도에 더 많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른 사전연구들(강승호, 1999; 김상호, 1995; 박영신, 1995; Bridgeman, Jenkins, & Ervin, 1999; Hand & Prather, 1985)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표 3>에서 학기별 평점이 아닌 평점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내신과 전체평점의 상관계수가 95학년(.13), 96학년(.20), 97학년(.22), 98학년(.32), 99학년(.37)으로 올수록 단순상관관계가 조금씩 높아졌고, 수능과 평점평균과의 상관관계도 95~99학년 동안 -.09, -.03, .08, .15, .23으로 점차적으로 높아졌다. 내신과 전체평점뿐 아니라 수능과 전체평점과의 관계가 5년 전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상관계수가 높아졌는데, 이는 해가 거듭될수록 내신과 수능이 대학의 학업성취도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결과는 1995학년도부터 1999학년도까지의 입시제도에서 내신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안정적으로 정착화되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더 많이 예언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내신성적과 대학평점간의 상관계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높아진 것은 내신성적의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학생들이 학교교육에 보다 충실히 임했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일부 기여한 점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해마다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한 고차적 사고능력 측정을 강화하여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능력을 측정하는 역할이 점차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2. 입학성적의 입학후 대학 학업성취도 예언도

“1995학년도부터 1999학년도까지 동의대학교에서 사용한 입시전형자료에서 대학 학업성적에 가장 크게 공헌한 예언변인은 무엇이며, 각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중다상관을 계산하여 각 변인의 설명력을 비교하였다. <표 4>의 r 은 내신과 평점평균간의 상관관계를 말하며, R 은 내신, 수능과 평점평균간의 중다상관을 의미한다. 이들을 각각 제공한

r^2 , R^2 은 설명계수를 의미하며, 이들의 차이를 계산하여 마지막 열에 제시하였다. 내신과 수능이 대학학점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크지 않지만(3~14%), 95학년도보다는 최근으로 올수록 설명계수가 조금씩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내신만을 예언변인으로 사용했을 때에 비해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사용했을 때 그 설명력은 크게 증가되지 않았다.

<표 3> 입학성적과 대학성적간의 단순상관분석

	수능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평점 평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95 내신	.20**	.26**	.03	.01	.18**	.18**	.14**	.18**	.18**	.13**
수능		.05*	-.15**	-.21**	.06**	.01	.06*	.11**	.11**	-.09**
96 내신	.12**	.08**	.21**	.22**	.20**	.19**	.19**	.24**	.18**	.20**
수능		-.24**	.03	.05*	.07*	.04	.12**	.15**	.17**	-.03
97A 내신	.12	.25	.19**	.17**	.19**	.15**	.17**	.21**		.22**
수능		.13**	.08**	.07**	.10**	.08*	.11**	.14**		.08**
97B 내신	(.63**)	.15*	.13*	.16*	-.01	.08	.25**	.18		.07
논술		.19*	.25*	.29**	.10	.09	.33**	.34**		.15*
98A 내신	.42**	.31**	.29**	.29**	.28**	.29**				.32**
수능		.15**	.13**	.15**	.13**	.19**				.15**
98B 내신		.	.	.	.	.				.
수능		.16**	.20**	.03	-.03	.08				.16**
99A 내신	.47**	.36**	.33**	.26**						.37**
수능		.21**	.20**	.18**						.23**
99B 내신		.	.	.						.
수능		.21**	.20**	.19**						.23**

()안의 상관계수는 내신과 논술의 상관을 의미한다. * $p<.05$ ** $p<.01$

<표 4> 내신과 수능, 평점평균간의 중다상관계수

	r(내신, 평점평균)	설명계수(r^2)	R(내신, 수능, 평점평균)	설명계수(R^2)	설명계수의 차이(R^2-r^2)
95	.129	.017	.177	.031	.014
96	.194	.038	.201	.040	.002
97A	.219	.048	.227	.051	.003
98A	.315	.099	.316	.100	.001
99A	.373	.139	.378	.143	.004

내신과 수능의 예언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5>에 제시

되어 있다. 독립변인은 내신과 수능이고, 종속변인은 학기별 평점이나 전체평점으로 하여 stepwise방법으로 신입생의 연도에 따라 학기별로 각각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인들간의 상관정도가 너무 높아 중다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표 3>에 제시된 독립변인들간의 단순상관관계를 확인해 보았다. 독립변인간의 상관계수가 .12~.47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다공선성의 문제를 무시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들을 단계별로 선택하는 중다회귀분석식 변인선택 및 제거에 대한 통계적 판정기준은 기본값(in=.05, out=.10)을 사용하였다. <표 5>는 변인선정과정을 통해 비록 설명력이 낮아 제거된 변인이라도, 내신과 수능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함께 제시하였다.

두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Beta값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내신과 수능을 전형안으로 사용한 95, 96, 97A, 98A, 99A안을 살펴보았다.

95 전형안에 의하면, 내신과 수능은 .15, -.13으로 내신의 영향력이 높으며, 수능은 오히려 (-)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96 전형안은 내신 .20, 수능 -.06으로 내신의 영향력이 수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7A 전형안은 내신($\beta=.21$, $p<.001$)과 수능($\beta=.06$, $p<.05$) 중 내신이 높았다. 98A 전형안을 보면 .31, .02로 내신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수능보다 높고, 내신과 수능의 t값은 각각 14.31과 1.07로 내신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99A 전형안에 의하면, 내신과 수능이 전체평점에 미치는 영향력이 각각 .34, .07로 내신이 대학의 평점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신과 수능의 t값은 각각 16.04, 3.41로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연도별 경향을 알기 위해 95, 96, 97A, 98A, 99A 전형안을 비교한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내신의 상대적 영향력이 높아지고(.15, .20, .21, .31, .34), 수능도 역시 Beta값이 (-)방향에서 (+)방향으로 (-.13, -.06, .06, .02, .07) 비록 적은 값이기는 하지만 점차적으로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1995학년도부터 1999학년도까지의 입시제도에서 내신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화되어, 대학신입생 선발에 있어서 제 기능이 점차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3. 특차와 일반전형방법의 대학 학업성취도 예측비교

"1998~1999학년도에 적용된 특차전형과 일반전형에 있어 어느 전형방법이 대학 학업성적을 더 효과적으로 예측하였으며, 각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 98과 99학년도에 실시한 일반전형안 A와 특차전형안 B를 통해 대학 성적의 예측 정도를 비교하였다.

<표 5> 내신, 수능, 평점평균을 이용한 중다회귀분석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평점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평균	
95	내신	β	.26	.06	.48	.18	.18	.14	.18	.18	.15
		t	12.82***	3.13**	2.33*	8.24***	8.08***	4.53***	6.10***	5.51***	7.40***
	수능	β	-.01	-.16	-.22	.02	.01	.06	.11	.10	-.13
		t	-.28	-7.75***	-10.48***	.95	.26	1.88	3.50***	3.24***	-6.01***
96	내신	β	.11	.21	.22	.20	.18	.19	.23	.17	.20
		t	5.50***	10.60***	11.00***	7.61***	6.90***	6.00***	8.29***	4.71***	10.15***
	수능	β	-.25	.01	.03	.03	.04	.12	.14	.16	-.06
		t	-12.90***	.41	1.30	1.16	1.40	4.33***	5.08***	4.43***	-2.78**
97A	내신	β	.23	.14	.17	.18	.15	.16	.20	.	.21
		t	9.98***	7.78***	7.02***	6.74***	5.02***	4.75***	5.51***	.	8.98***
	수능	β	.10	.05	.05	.07	.08	.10	.14	.	.06
		t	4.24***	2.15*	1.91	2.46*	2.62**	2.91**	3.77***	.	2.42*
97B	내신	β	.01	-.14	-.19	-.23	.03	.29	.09	.	-.07
		t	.58	-1.37	-1.70	-1.87	.18	3.43**	1.06	.	-.75
	논술	β	.19	.35	.44	.28	.07	.18	.31	.	.20
		t	2.10*	3.51**	3.95***	2.26*	.52	2.19*	3.53**	.	2.13*
98A	내신	β	.30	.28	.28	.28	.26	.	.	.	.31
		t	13.87***	12.49***	9.57***	8.27***	7.11***	.	.	.	14.31***
	수능	β	.02	.01	.04	-.00	.11	.	.	.	.02
		t	1.11	.64	1.36	-.04	3.09**	.	.	.	1.07
98B	내신	β	.	.	.	.	.	.	.	.	.
		t	.	.	.	.	.	.	.	.	.
	수능	β	.16	.20	.03	-.03	.08	.	.	.	.16
		t	4.41***	5.29***	.65	-.49	1.27	.	.	.	4.38***
99A	내신	β	.33	.30	.23	.	.	.	.	.	.34
		t	15.49***	13.22***	7.42***	.	.	.	.	.	16.04***
	수능	β	.05	.07	.08	.	.	.	.	.	.07
		t	2.50*	2.99**	2.52*	.	.	.	.	.	3.41***
99B	내신	β	.	.	.	.	.	.	.	.	.
		t	.	.	.	.	.	.	.	.	.
	수능	β	.21	.20	.19	.	.	.	.	.	.23
		t	6.28***	5.77***	4.30***	.	.	.	.	.	6.84***

* $p < .05$ ** $p < .01$ *** $p < .001$

<표 6>에서 98학년도 입학생의 경우 A는 내신과 수능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학기별 및 전체 평점의 평균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했을 때의 중다상관인 .31, .29, .29, .28, .31로 나타났는데 반해, B의 특별전형에서는 수능만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학기별 및 전체평점의 평균을 종속변인으로

로 하여 상관계수를 계산한 결과, .17, .20, .03, .03, .08로 나타났다. 3학년 1학기까지의 평점평균과 독립변인과의 중다상관은 일반전형은 .32이고, 특차전형은 .16으로 나타났다. 설명계수(R^2)의 경우, 일반전형은 .10이고, 특차전형은 .03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신과 수능을 고려한 입학성적이 대학입학후 학업성취도를 설명하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못하지만 내신과 수능의 점수를 함께 고려한 일반전형이 수능만을 고려한 특별전형의 경우보다 설명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99학년의 경우, 내신과 수능을 함께 고려한 일반전형에서 2학년 1학기까지의 3학기 동안의 평점평균의 중다상관은 .38이고, 특차전형 B는 .23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제공한 설명계수는 일반전형의 경우 14.4%이고, 그리고 특차전형의 경우 5.3%로 나타났다. 이는 98학년도와 마찬가지로 99학년도에도 내신과 수능의 점수를 함께 고려한 일반전형이 수능만을 고려한 특별전형의 경우보다 설명력이 높았음을 시사한다.

98학년도와 99학년을 비교했을 때, 일반전형과 특차전형의 대학학업성취도에 대한 설명력이 각각 증가되었으나, 여전히 입학성적이 대학입학후 학업성취도를 설명하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98, 99학년도 일반(A) 및 특별전형(B)의 중다상관계수(R)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평점 평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98A	.31	.29	.29	.28	.31	.	.	.	.32
98B	.17	.20	.03	.03	.08	.	.	.	.16
99A	.36	.33	.27	.	.	.	.	.	.38
99B	.21	.20	.19	.	.	.	.	.	.23

V. 결 론

최근 대학환경의 변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대학 입시제도의 도입은 한국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고등학교교육의 정상화, 학생선발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그리고 대학의 학생 선발권 보장』이라는 3가지 기능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대학입학전형제도가 도입되어, 대입전형에서 고등학교 내신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율적인 선발방법 등 세 가지를 활용하여 각 대

학에서 요구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왔다. 그동안 각 대학에서는 이러한 대학입학전형제도에 준하여 뛰어난 학생들을 유치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한편으로는 경쟁력이 처지는 학생들을 신입생 선발에서 배제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를 위해 각 대학에서는 대학입학 지원자들의 성공적인 학업수행 가능성을 결정하는데 있어 고등학교 내신 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및 이외의 전형자료(논술, 면접 등) 중 고등학교 내신성적과 더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가장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 소재 사립대학교 중의 하나인 동의대학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입학전형안이 대학 재학시 이들의 대학 수학 적합성을 잘 예측해 주는지를 분석하여, 2002학년도 새로운 입시제도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5부터 1999학년도까지 동의대학교에서 중요한 전형자료로 사용하였던 수학능력시험 성적과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95학년도부터 99학년도까지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3학기까지의 학점산출이 가능하지 않은 학생, 예체능계 학생, 사례수가 많지 않은 특별전형안에 의해 선발된 학생은 본 연구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신성적과 대학의 평점평균간의 상관인 수학능력시험과 평점평균간의 상관보다 일관성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 변인들간의 상호상관이 최근으로 올수록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내신과 대학의 평점평균간의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수학능력시험과 평점평균과의 상관관계가 5년 전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높아졌는데, 이는 해가 거듭될수록 내신성적과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대학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비해 내신성적이 대학 학업성취도에 가장 크게 공헌한 예언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경향분석을 위해 95, 96, 97A, 98A, 99A 전형안을 비교해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내신성적이 대학 학업성취도에 대한 예언변인으로서 그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높아졌으며,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내신성적에 비해 상대적 영향력은 적으나 그 정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1998~1999학년도에 적용된 특차전형과 일반전형의 경우, 내신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함께 고려한 일반전형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만을 고려한 특차전형에 비해 대학 학업성취도를 더 효과적으로 예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각의 전형방법이 대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98학년도에 비해 99학년도에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에서는 1995학년도부터 1999학년도까지의 입시제도에서 내신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여러 차례의 시행을 거듭하면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예언력이 증가된 것을 보여준다. 내신성적과 대학평점간의 상관계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높아진 것은 대학입시에

내신성적의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학생들이 학교교육에 보다 충실히 임했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일부 기여했음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해마다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한 고차적 사고능력 측정을 강화하여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측정 기능이 점차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예언력은 대학 학업성취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미약한 예언변인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학 학업성취도에 관한 설명력 10% 내외는 대학교육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한다는 면에서는 부족하여, 나머지 설명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기타 전형방안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학능력과 내신성적 만으로는 대학수학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예언력이 부족해 논술, 심층면접, 또는 자기추천서 등과 같은 다른 전형방법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다.

본 연구의 특징은 첫째, 어느 특정한 연도의 단편적인 분석이 아닌 5년간(1995~1999년)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점과, 둘째, 어느 특정 학년이나 학기의 성적은 물론 적어도 3~8학기까지의 대학성적을 포괄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 사립대학교인 동의대학교 학생들의 대학입학 전형자료(내신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와 이들의 대학 학업성취도에 국한한 것이므로, 이를 다른 여건의 대학교에 적용시키기에는 제한점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해 동의대학교에서 2002학년도부터 입시전형이 보다 다양화되고 특차모집의 폐지와 더불어 연중 수시모집이 활성화되는 체계로의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동의대학교, 2001).

첫째, 현행의 전형자료의 합산에 기반을 둔 행정시스템을 다양한 전형자료의 분석과 검토, 예측이 가능할 수 있는 상시적 전담부서(예: 입학전형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 이는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입시 전형의 평가와 본교의 특성있는 다양한 전형 방법을 개발하고 전형의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화된 인력을 확보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둘째, 이와 더불어 고교교사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지원자가 많은 고교를 중심으로 학교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하며, 관련 입시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입시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셋째, 각 대학간의 입시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공유된 정보를 검토, 분석하여 보다 본교의 교육목표와 특성화에 적합한 다양한 전형방법을 개발함과 동시에 타 대학의 입시전략에 대한 정보를 비교 분석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양한 전형방법은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이며 타당한 척도의 제시가 뒤따라야 되

며, 수험생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되 대학 입학 후의 학습 능력에 대한 배려도 고려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다양하고 대학 독자적인 특별전형의 유형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각 유형을 선택함에 있어 실제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소년·소녀가장의 유형은 경제적 빈곤층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학비 지원 여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추천제를 활용할 경우, 교육감 혹은 사회지도층 인사의 추천은 학생을 파악할 기회가 교사나 학교장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형식화 될 가능성이 있고, 자기 추천제, 수학기획서의 경우에는 타인에 의한 대필, 대작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에는 그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부대 시설의 설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새입시제도가 전형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비교과 자료를 준거로 하여 학생 선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비율적으로 볼 때 학문적 준거로 선발하는 학생 수보다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사회적 인식에 따른 대학의 서열화라는 부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대학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전형방법도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교가 부산권 중위라는 서열적 인식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각 학과의 특성을 살린 특성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관련 교과과정을 사회적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내부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입시 및 입시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내신성적만을 분석하였으나, 연구결과 다른 다양한 전형방안을 도입함으로써 예언타당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내신성적만을 분석하였으나, 이외에 전공에 대한 흥미 및 미래에 대한 포부와 같은 정의적 변인을 포함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수도권대학, 국·공립대학, 그리고 논술과 면접을 포함한 전형안을 사용하는 대학교와의 비교연구를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1994년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이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예언타당도에 대한 전국적 규모의 선행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후속연구가 요망된다.

참 고 문 헌

강승호(1999). 강원대학교 입학전형결과 분석연구- '95~'97학년도 신입생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제9집, 69-106,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

- 강승호(1990). 대학입학선발고사의 예언타당도 분석- 강원대학교 신입생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28(2), 1-14.
- 고형일 외(1998). 2002학년도 이후의 입학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교육부.
- 교육부(1999a).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내 자료집.
- 교육부(1999b). 2002학년도 대입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고등교육 분야 준비방안 연구.
- 김상호(1995).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고등학교 내신성적과 대학학업성적과의 상관관계 연구. 중앙
대한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10, 91-112.
- 김석우·변영계(1995). 1995년도 부산대학교 신입생 전형준거에 관한 연구: 판별분석의 적용. **교육연구**, 제5집, 97-110, 부산대학교 교육연구소.
- 김충희(1993). 대학입시제도의 타당성 분석(대학학력고사와 내신성적의 타당성 분석). **교육개발**
논총, 14(1), 45-81.
- 동의대학교(2001). 2002학년도 동의대학교 대학 입학 전형 연구 보고서.
- 민경찬(1999). 200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이해. **대학교육**, 100호, 100-107.
- 박영신(1995).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타당성 분석: I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3(1), 45-76.
- 백순근 외(1998). 대학입학 선발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성태제(1998). 200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제도의 분석. **교육진흥**, 42, 18-28.
- 윤명희·안도희(2001). 2002학년도 동의대학교 입학전형연구: 교수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동의논**
집, 제34집, 597-631.
- 우종욱(1994).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바람직한 정착 방향. **대학교육**, 69, 10-23.
- 이종승(1996). 대학 입학 제도의 변천과정과 새 제도의 의의. **교육진흥**, 42, 6-17.
- 이종재(1999).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개혁방안. **교육행정학연구**, 17(1), 9-22.
- 이현창(2000). 2002년 대학입시 특별전형제도의 방향과 과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임찬빈 외(1998). 대학 수학능력검사의 영향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최창섭(1999). 2002년 강릉대학교 입학전형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강릉대 학생생활연구**, 18,
67-113.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0). 21세기 학교교육 발전 방향 모색.
- 한국교육과정평가원(1998).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연수자료: 제7차 교육과정 연수자료. 교
육부.
- 허경철 (1991). 대학교육적성검사의 발전방향: 외국의 대학교육적성검사의 활용 실태와 특징. 한
국교육평가연구회 제8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7-39.
- Bridgeman, B., Jenkins, L., & Ervin, N.(1999). *Variation in the prediction of college
grades across gender within ethnic groups at different selectivity levels*. ED434
930.

- Gomstyn, A.(2000). *The SATs: Admissions test for life?* University Wire.
- Hand, C.A., & Prather, J.E.(1985). *The Predictive validity of scholastic aptitude test scores for minority college students*. ED261 093.
- Slack, W.V., & Porter, D.(1980). The scholastic aptitude test: A critical appraisal. *Harvard Educational Review*, 50, 154-175.
- Stricker, L.J., Rock, D.A., & Burton, N.W.(1996). Using the SAT and high school record in academic guidanc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6(4), 626-643.
- Trusheim, D., & Crouse, J.(1982). The ETS admissions formula: Does the SAT add useful information? *Phi Delta Kappan*, 64, 54-61.
- Wilmouth, D.(1991). *Should the SAT be a factor in college admissions?* ED345 592.

ABSTRACT

Reflecting the New College Entrance System:
Focused on Dong-eui University

Yun, Myung-Hee and Ahn, Doehee
Dong-eu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e major application materials from students and develop a local university's criteria to admit students in year 2002. The following data were obtained on 13,923 undergraduates enrolled between 1995 and 1999 at Dong-eui university: CSAT scores; HSA; and cumulative university GPA. A multiple regression model was developed with the dependent variable being mean of cumulative university GPA across all subjects,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being CSAT and HSA. The regression equations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calculated for all subjects using three variables such as the CSAT, HSA, and university GPA.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ly, the university GPA had consistently stronger correlation with HSA scores than with CSAT scores. Secondly, the HSA scores was the better predictor for students' university GPA than the CSAT scores. Finally, the prediction of the university GPA using both HSA and CSAT scores was

stronger than using the CSAT only. However, the CSAT and HSA scores, in general, have less prediction for students university GPA.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varying materials application materials (e.g., essay-writing, letter of recommendation, structured interview, performance-based tests, etc.) from students should be considered as college admission data.